

# 제3세계 사회사업 발전과 외국(외원)의 영향 :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최 원 규\*

## 제1절 문제제기

이 글에서는 서구사회에 기원을 두고 발전한 사회사업(social work)이 제3세계 국가로 확산되어간 과정과 그 결과를 한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비교사회사업이나 비교사회정책을 연구한 학자들은 일국의 사회사업, 사회정책의 아이디어와 기술들이 타국, 특히 제3세계 국가들에 확산된 현상을 주목해왔다(Nagpaul:1972, Midgley:1981.1984, MacPherson & Midgley:1989, Bogo:1990, Pandy & Yamada,1992, 나병균:1993).

Nagpaul은 미국식 사회사업교육이 YWCA와 같은 민간단체에 의해 인도에 확산된 현상을 기술하였고, Midgley(1981)는 20세기 초 독일의 사회보험 아이디어가 영국지도층에 의해 '확산'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서구 사회정책의 아이디어가 제3세계에 확산되었음을 기술하였다. Midgley(1981), MacPherson & Midgley(1989)는 미국의 종교단체와 원조단체들이 미국의 전문사회사업(미국의 사회문제에 대한 미국의 혁신)을 제3세계국가에 확산하는데 채널로 기능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위의 연구들이 서구의 사회복지 아이디어와 기술이 제3세계에 확산된 현상을 단순히 기술하였다면, Pandy & Yamada는(1992) '혁신 확산이론(Diffusion of Innovation Theory)'(Rogers & Shoemaker,1971;Rogers,1983)을 체계적으로 적용하여 네팔 지역사회개발사업에서 개량화덕(improved cookstove)의 채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구명하였다. 한편 나병균(1993)은 제3세계 사회정책에 있어서는 국가사회 외부적 요인들로부터의 '문화확산' 영향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결론지은 바 있다.

서구 특히 미국에서 발전한 사회사업은 일부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로 전파되었다. 특히 제3세계 국가들에서는 식민통치로부터 독립한 후에도 서구 국가로부터의 영향을 사회 각부문에서 강하게 받고 있는데, 사회사업의 발전도 예외는 아니다.

제3세계 국가들이 매우 다양하고, 또한 그들 국가에서 사회사업의 발전양상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하여 논의하기는 무리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제3세계권에 포함되는 한국의 경우를 사례로 하여 한국 사회사업 발전에 미친 외국(외원)의 영향을 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외국으로부터의 혁신 확산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사회문제에 대한 미시적인 해결기술인 사회사업 아이디어와 기술의 전파만을 고찰하기로 한다.

이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혁신확산이론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 후, 제3절에서는 확산이론의 관점에 따라 한국의 사례를 분석한다. 제4절에서는 확산이론의 주요 개념들을 다소 융통성있게 구사하면서 제3세계 일반의 사회사업 발전에 미친 외국(외원)의 영향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제5절에서는 논의된 내용의 요약과 함께 이 연구가 갖는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기술한다.

## 제2절 혁신확산(diffusion of innovation)

확산이론은 기본적으로 개인, 집단 또는 사회체제 수준에서 혁신(innovation)이 전파되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다(이하 혁신확산이론에 대한 설명은 Rogers & Shoemaker:1971, Rogers:1983). 사회현상으로서 혁신의 확산에 대해서는 고대로부터 학자들에 의해 언급되어 왔다. 기원전 5세기경에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문명의 확산현상을 기술하였다. 돌도끼와 같은 도구가 지리적으로 전파되는 현상이나, 소문이 퍼져나가는 현상, 군중심리가 생성되는 현상, 개량옥수수 종자가 농부들 사이에 퍼져나가는 현상, 새로운 상품이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받는 현상 등등 확산이론은 인류학, 언론학, 심리학, 사회학, 경영학 등 많은 학문분야에서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확산이론의 확산을 운운할 정도로 사회과학분야를 비롯한 학문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본고의 논의전개와 관련하여 혁신확산이론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한다.

### 1. 혁신(innovation)

혁신의 확산은 혁신(innovation)을 창안한 정보원(source)이 특정한 매체(channel)를 활용하여 혁신을 수용자(receiver)에게 전파하는 과정이다. 여기에서 혁신이란 새로운 아이디어, 실천, 사물 등으로 상징적.관념적 혁신(예를 들어 기독교복음, 민주주의, 사회사업 등)과 물질적.구체적 혁신(예를 들어 분무기, 개량옥수수종자, 통일법씨, 항생제 등) 모두를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서구 사회사업은 서구의 사회문제에 대한 실용적인 개입기술로서 하나의 혁신이다.

확산의 결과 또는 영향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혁신은 다음과 같은 5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로 혁신은 기존의 것과 비교하여 상대적 이점(relative advantage)을 갖는다. 둘째로 혁신은 수용자의 조건과 부합한다는 의미에서 적합성(compatibility)을 갖는다. 셋째로 혁신은 너무 단순한 것 보다는 다소의 복잡성(complexity)을 지닌다. 넷째로 혁신은 수용자들에 의한 시험가능성(trialability)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혁신은 그 성과나 과정에 대한 관찰가능성(observability)을 지닌다.

그런데 이러한 혁신을 확산함으로써 수용자측의 태도, 사고,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는 계기는 무엇인가?

혁신의 확산이 이루어지려면 수용자측의 행동, 태도 가치관 등에서의 변화를 촉발하는 요구가 제기되어야 한다. 그러한 변화요구가 수용자측의 사회체제 내부에서 제기되었느냐 아니면 외부에서 제기되었느냐, 그리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혁신의 원천이 사회체제 내부에 있는가 아니면 외부에 있는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4가지의 변화유형이 나타난다.

<표1>변화의 종류

변화요구의 인정	새로운 아이디어의 원천	
	사회체제 내적	사회체제 외적
내적: 사회체제 구성원에 의한 인정	1. 내재적 변화	2. 선별적 접촉변화 (selective contact change)
외적: 사회체제 외적 변화 주도체에 의한 인정	3. 유인된 내재적 변화	4. 지도된 접촉변화 (directed contact change)

서구 사회사업의 확산을 검토하려는 우리의 관심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원천이 제3세계 외부에서 창안되었다는 점에서 위의 4가지 유형 가운데 선별적 접촉변화와 지도된 접촉변화에 모아진다. 선별적 접촉변화는 사회체제 구성원에 의해 변화요구가 제기되고, 그에 따라 사회체제 외부로부터 선별적으로 혁신을 수용하는 일종의 '능동적 학습'이다. 반면 지도된 접촉변화는 외부인에 의해 외부인이 규정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새 아이디어가 한 사회체제에 도입되는 변화로서 정보원 입장에서 보면 '계획된 변화'이며, 수용자 입장에서는 '수동적 학습'이다.

## 2. 정보원(source)과 수용자(receiver)

혁신의 확산은 사회체제(구성원)들 사이에서 어떤 혁신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떤 매체를 통해 전파되는 현상이다. 혁신의 확산은 커뮤니케이션의 특수형태로서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냐가 중요하다. 여기에서 혁신확산이론의 중요한 명제가 발전되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정보원과 수용자가 비슷한 사람일 때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다(homophily). 정보원은 많은 잠재적 수용자들 중에서 자기와 가장 비슷한 속성을 가진 수용자를 선택하려는 강한 경향이 있다. 여기에서 두 당사자가 비슷하다는 것은 가치관, 종교, 교육수준, 사회계급 등 여러 속성들에서 비슷하다는 의미이다. 그 이유는 개인적, 사회적 특성이 유사하면, 예를 들어 같은 말과 글을 사용하면 의사소통이 효과적으로 되고, 서로 지식을 얻고 태도를 바꾸고 또 행동의 변화까지 쉽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혁신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두드러진 난점은 정보원과 수용자가 이질적이라는 사실이다(heterophily)(이 경우 확산의 효과는 중대된다). 정보원과 수용자가 서로 다른 문화에 속해있을 때 이들 사이의 이질적 격차는 더 멀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선진국으로부터 저개발국가로 기술적인 혁신이 소개되는 경우에는 문화횡단적 이질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서구 사회사업의 확산에서 문화적 이질성의 문제가 종종 제기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이다(Resnick:1976, Ejaz:1991, Kilpatrick:1993, Segal:1993).

## 3. 매체(channel)

혁신을 수용자에게 전파하는 커뮤니케이션 매체는 변화주도체(change agents)이다. 보통 정보원이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선택하는데 선택시의 고려사항으로는 커뮤니케이션의 목적과 수용자 특성 등이다.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은 새로운 상품의 판매, 종교복음의 전파, 정보원에 대한 이미지 제고, 특정한 정치적 이념의 전파 등 정보원과 혁신의 속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또한 동시에 두가지 이상의 목적이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해 추구될 수도 있다(예를 들어 개량옥수수종자의 전파와 농기구의 판매)

이러한 매체로는 선교사, 농사지도원, 평화봉사단원, 상품판매원, 선거운동원, 학교교사, VISTA지원자 등으로서 이들은 두 사회체제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이질적인 사회체제를 연결시키는 매체의 경우 언어의 차이, 사회경제적 신분, 전문적 능력, 신앙과 태도 등에서의 이질성이 커뮤니케이션(즉 개혁의 확산)을 저해할 수 있다.

#### 4. 혁신확산의 과정과 결과

혁신은 군중 사이에서 소문이 전파되는 경우와 같이 단기간에 확산되기도 하고, 비기독교 국가에 기독교를 전파하는 경우와 같이 오랜 기간에 걸쳐 확산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혁신은 다음과 같은 5 단계를 거쳐 수용자에게 확산된다. 즉 수용자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처음 알게 되고(인지단계), 혁신에 대해 보다 상세한 지식을 얻게되며(흥미단계), 혁신에 대해 좋다 나쁘다 식의 주관적 태도를 형성하며(평가단계),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적용해보고(소규모시험단계), 최종적으로 혁신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한다(채택여부의 결정단계). 혁신을 얼마나 빨리 또는 늦게 채택하느냐에 따라 수용자는 혁신자, 조기 채택자, 조기대다수, 후기대다수, 비혁신자(laggards)로 분류된다.

혁신확산의 결과는 정보원이 어떤 매체를 통해 어떤 혁신을 어떤 방법으로 확산했으나, 그리고 수용자가 혁신을 채택했느냐의 여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개량 옥수수 종자를 심기로 한 농부의 경우 생산량의 증대를 경험할 수도 있고, 반대로 농사를 망치는 결과를 볼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혁신의 확산으로 사회체제가 변할 수도 있다(예를 들어 혁명이념의 전파). 문화확산의 경우 수용자측의 문화가 정보원측의 문화에 종속되는 일도 가능하다.(Midgley:1981)

혁신의 결과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할 점들은 첫째로 혁신의 결과가 수용자측에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왔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기능적.역기능적), 둘째로 수용자측의 변화가 혁신이 직접 낳긴 결과인지 또는 혁신전파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나타난 것인지 하는 문제(직접적.간접적), 셋째로 수용자측의 변화를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요구하고 원했는지 아닌지 하는 문제(현재적.잠재적) 등이다. 일반적으로 혁신확산의 매체인 변화주도체(change agents)는 기능적, 직접적, 현재적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혁신들을 추진한다.

### 제3절 한국 사회사업 발전에 미친 외국(외원)의 영향

구한말부터 부분적으로 소개 또는 도입된 서구 사회사업은 1950년 한국전쟁 후 한국사회에 본격적으로 전파되었다. 물론 한국의 전통사회에도 서구의 사회사업에 상응하는 사회문제 해결체계가 존재했었고, 그들 중의 일부는 오늘날에도 기능을 발휘할 정도로 계승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계, 慶弔事의 부조와 같은 상부상조관행), 한국 사회사업을 지탱하고 있는 이론적, 방법론적 요체는 서구로부터 도입된 것이다. 이점에서 서구 사회사업의 확산을 논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제2절에서 살펴본 혁신확산이론의 설명순서에 따라 서구사회사업의 확산을 논의하기로 한다.

#### 1. 서구 사회사업(혁신)의 속성

서구 사회사업은 산업화 과정에 파생된 사회문제-예를 들면 빈곤문제, 알콜중독, 가족갈등 등-에 대한 실용적인 개입기술체제인데, 그 속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로, 서구 사회사업은 도시의 사회문제를 배경으로 하여 발전해왔다. 산업화에 따른 인구이동의 결과 도시의 발전이 두드러지고, 도시생활 자체가 많은 사회문제를 배양하는 한편 도시에서는 전통적인 상부상조체계, 또는 공동체의 원조체계가 미약해짐으로써 새로운 원조전문직-즉 사회사업-이 발전한 것이다.

따라서 서구 사회사업은 발전초기부터 도시중심의 기반위에 서 있다.

둘째로, 사회문제에 대한 개입방법에 있어서 서구 사회사업은 주로 개인의 부적응과 병리현상을 치료, 변화시키는 미시적인 기술들을 발전시켰고(대표적인 것이 케이스워크이다), 사회구조의 변화나 제도개혁에는 소극적이었다. 시기적으로 개인변화지향의 사회사업과 사회제도개혁 지향의 사회정책사이에 부침현상을 보이기는 하나(Ehrenreich:1985), 사회사업은 기본적으로 개인과 가족의 치료와 같은 미시적인 변화의 전통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는 서구의 개인주의 이념이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세째로, 서구 사회사업은 기독교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 서구의 중심적인 종교로서 기독교는 시민들의 삶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자선사업, 박애사업 등 사회사업의 맹아기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 일들이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네째로, 서구 사회사업은 시민사회의 성숙과 더불어 민간이 중심이 되어 발전해왔다. 사회정책은 속성상 국가가 중심이 되어 왔다면 사회사업은 국가와의 역할분담에서건 아니면 시민사회의 성숙을 반영하건 민간이 발전에 있어서 주도권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속성을 지닌 서구 사회사업(혁신)이 한국사회에 확산되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혁신인지를 혁신의 특징을 들어서 논의해보자.

첫째로 서구 사회사업(혁신)은 한국사회의 전통적인 상부상조체제나 기존의 사회적 지원체계에 비해 상대적인 잇점을 부분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서구 사회사업이 미시적인 사회문제 해결기술이기는 하나 사회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진단과 정형화된 처방기술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는 한국 전통의 사회적 지원체제와 다르면서도 제한된 효과는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960년대 산업화 이후 한국사회에서도 소위 서구적인 사회문제들이 증가하고 있어 서구 사회사업이 갖는 상대적 잇점은 높아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로 서구 사회사업(혁신)이 한국의 사회상황(수용자의 조건)과 부합되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밖에 없다. 그 이유는 서구 사회사업이 태동,발전된 사회문화적 조건이 한국의 그것들과는 판이하기 때문이다(heterophily). 서구 사회사업이 제3세계의 문화적 조건에 부합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Midgley(1981)에 의해 부분적으로 제시되었다. Midgley는 개인주의와 도시사회를 기반으로한 사회사업의 원칙과 방법들이 전통적인 가족주의와 농촌공동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많은 제3세계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심층적으로 보여준 바 있다. 서구에서 발전된 사회사업의 개념과 방법들이 제3세계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라는 점은 국제연합의 후원으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던 소위 '사회사업의 토착화(indigenization)'라는 주제의 대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세째로 서구 사회사업은 다소 복잡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케이스워크, 그룹워크, 커뮤니티 오가나이제이션 등의 주요 기술들이 당시의 한국인들에게는 매우 부분적으로만 전파되었고, 부분적으로 또는 왜곡되어 이해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오늘날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네째로 서구 사회사업은 1950년대 이후 오늘날까지 한국인들에 의해 시험되고 있다. 그간 Hollis와 Perlman의 케이스워크, Konopka의 그룹워크, Ross의 커뮤니티오가나이제이션 등이 한국인 사회사업가들에 의해 시험되었고, 최근에는 Minuchin, Apponte의 가족치료기법 등이 시험되고 있다.

다섯번째로 서구 사회사업의 성과와 실천과정에 대해서는 한국인들이 관찰할 수 있는 기회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응급구호사업에 치중하던 1950년대에 한국에서 이루어진 서구 사회사업의 성과와 과정에 대한 관찰가능성이 높았다고는 볼 수 없다.

이상에서 볼 때 확산초창기의 서구 사회사업은 한국사회에서는 사회문제에 대한 혁신으로서의 속성을 충분히 갖추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하여 혁신의 확산이 일어나지 못할 조건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예를 들어 소비자에게 낮은 상품도 계속적인 광고를 통해 친숙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확산과정이다).

서구 사회사업(체제외적인 아이디어)을 한국에 전파하게된 계기는 다분히 사회체제외적인 변화주도체에 의해 인정되었다. 구한말에는 주로 선교사들에 의해서, 일제시대에는 식민통치당국에 의해, 그리고 해방 후에는 미군정과 의원단체에 의해 서구 사회사업 아이디어의 확산을 통한 변화요구가 인정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1960년대 말까지는 지도된 접촉변화가 시도되었다고 하겠다. 1970년대 이후에는 개혁자(유학생, 사회사업가)들에 의한 선별적 접촉변화가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 2. 서구사회(정보원)와 한국사회(수용자)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속성을 지닌 서구의 사회사업이 제3세계의 조건, 즉 농업인구가 상대적으로 많고 도시발달이 늦고, 국민의 기본욕구해결에 급급한 저발전 상태, 부와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문제가 시급한 사회문제이며, 비기독교적인 사회분위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시민사회의 자율성이 확보되지 못한 전통사회의 제3세계의 조건에 맞는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회의론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서구사회사업과 기본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사회조건을 지닌 제3세계 국가들에서의 사회사업의 교육과 실천 모두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해온 것은 어쩌면 애초부터 당연한 귀결이었는지 모른다.

서구 사회사업이 한국사회에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1950년대를 전후한 시기의 서구사회-특히 미국사회(정보원)와 한국사회(수용자)는 가치관, 종교, 교육수준, 사회계급 등의 여러 속성에서 상이하였다. 기본적으로 도시중심의 서구사회와 농촌중심의 한국사회는 상이하였던 것이다. 미국의 사회사업이 아동문제, 부부갈등문제, 노인문제, 장애인문제, 청소년비행문제 등 개인의 부적응과 일탈문제를 두고 고민하던 때에 한국사회에서는 기본적인 의식주의 해결이 급선무였다. 확산이론의 설명에 따른다면 정보원과 수용자가 비슷한 속성을 지니고 있을 때 혁신의 확산이 일어난다는 것인데(homophily), 이 명제에 따른다면 사회사업 혁신이 1950년대에 한국사회에 확산될 수 있을 만큼의 조건은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방과 이에 이은 미군정, 그리고 한국전쟁과 같은 긴급한 상황의 전개로 서구 사회사업은 응급구호사업에서 확산의 계기를 갖게 된다.

미국의 사회사업은 중산층의 기독교 인사(개혁자)를 중심으로 우선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확산이론에서 homophily 명제에 따라 설명가능한 부분이다. 반면 미국 사회사업은 가치관과 종교, 교육수준에서 이질적인 한국의 일반 국민들에게는 제대로(?) 확산되지 못하였다. 일반 국민들의 인식으로는 사회사업은 자선사업이며, 구제사업이었다.

### 3. 서구사회사업의 확산매체

한국사회가 서구의 사회사업과 조우하기 시작한 것을 시기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조선말기 선교사들에 의한 사회사업실천과 개화지식인들에 의한 외국문물소개의 시기이다. 기록에 따르면 1854년 천주교 조선영해회(La Sainte Enfance)가 설립되었고, 메스트로 신부에 의해 고아원사업이 행해졌다 한다(조화영,1990). 이후 개항과 더불어 주로 선교의 목적을 지닌 단체들이 래한하여 사회사업시설(고아원, 양로원, 나환자촌 등),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을 설립하였다(KAVA,1994).

서구 사회사업과 조우한 두번째의 시기는 일제시대이다. 이 시기에도 서구의 선교단체들이 복음전파를 목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 일환으로 사회사업을 실천하였다. 예를 들어 기독교감리회의 태화사회관 설립, 농촌계몽운동, 고아원,양로원의 운영, 종교학교의 설립, 서양보건의료기술의 전파 등을 통해 서구의 사회복지가 부분적으로 소개되었다. 덧붙여 일본식으로 해석된 서구의 사회복지가 전파되기도 하였는데, 예컨대 독일 함부르크시에서 부랑인 취체를 위해 동원했던 관변 우애방문원제도가 일본에서 '방면위원제도'로 정착되었고, 그것이 식민지였던 조선에 이식되기도 하였다(신은주,1989). 식민지 조선에서 사회사업은 일제의 조선지배를 위한 한 방편으로 기능하였던 것이다. 한편 1922년 벨지움을 여행하던 이승만씨는 사회사업가 Rene Sand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것을 한국인과 서양 사회사업가와의 최초의 조우로 보는 사람도 있다.(Rekkebo,1966,KAVA:1994)

일제시대 서구 사회복지와의 조우도 매우 단편적이었고, 우연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일본을 경유한 서구 사회사업의 전파는 일본이 지닌 사회경제적 상황과 식민지였던 한국의 상황으로 일부 왜곡되어 전파되기도 하였다.

서구 사회사업과 본격적으로 조우한 것은 아무래도 1945년 해방 이후의 일이다. 해방 후 서구 사회사업의 전파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채널을 통해 이루어졌다.

- (1)외국민간원조단체(매체),
- (2)UN을 비롯한 국제기구(매체),
- (3)한국인 유학생(개혁자-매체),
- (4)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한 한국 사회복지단체, 시설(개혁자-매체)

외국민간원조단체는 조선말기부터 래한하여 활동을 전개한 선교단체들과 속성상 유사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해방과 한국전쟁의 혼란기에 한국에서 구호활동을 위시한 보건사업, 교육사업, 지역사회개발사업 등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아울러 이들은 한국에서 자신들이 수행하고 있는 구호사업과 원조사업이 언젠가는 한국인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한국인에 대한 사회사업교육에도 관심을 쏟았고, 그것이 한국 대학에서의 사회사업교육을 촉발시켰다(최원규:1991). 의원단체가 수행한 서구사회사업의 전파는 지도된 접촉변화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을 만 하다.

UN 및 UN산하기구들(UNICEF, UNESCO, UNKRA, UNKURK, UNDP등)은 국제적인 표준하에서 각국의 사정에 맞는 사회사업발전을 권고 또는 지원하였다.

한국인 유학생집단은 혁신확산에 의해 일차적으로 개혁된(즉 혁신을 채택한) 집단으로서 이들은 서구의 사회사업을 전파하는 매체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이미 1950년대에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서 활동한 사

회사업가들도 있었다. 1993년에 편찬된 「한국사회복지학회사.인명록」에 의하면 인명록에 수록된 231명 가운데 외국에서 수학한 사람은 83명으로 36%의 회원이 외국에서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들이 수학한 국가로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그 다음이 일본이다.(미국 석사 46명, 미국 박사 46명, 일본석사 8명, 일본 박사 7명)

한국 사회복지단체 및 시설들도 사회사업 혁신을 채택한 개혁자들로서 서구 사회사업을 도입.소개하는 매체로서 기능하였는데, 특히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한 각종 협의체들의 기능이 돋보인다. 한국사회사업연합회(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전신)에서는 1954년 이래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WS)가 주최하는 대회에 대표단을 파견해왔으며, 「사회복지」지 발간, 전국사회사업가대회 주최, 사회복지관련 교육의 실시 등을 통하여 서구 사회복지의 소개와 도입에 기여하였다.

이상 4가지 채널들이 서구의 사회복지를 한국에 전파하는데 각각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가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시기적으로 보아 1960년대 이전에는 (1)외국민간원조단체들에 의한 서구 사회사업의 소개가 다른 채널에 비해 두드러졌고, 1960년대 이후에는 (1)외국민간원조단체 뿐 만 아니라 (2)-(4)에 이르는 각 채널들의 상대적 중요성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경제의 성장과 사회복지여건변화에 따라 외원이 점차 철수하게 되어 이후의 시기에는 (1)외원을 통한 서구 사회사업의 전파는 상대적으로 미약해지게 된다.

#### 4. 사회사업의 확산과정과 결과

서구 사회사업의 확산을 혁신확산의 과정(단계)에 맞추어 설명해보자. 서구 사회사업의 아이디어를 알게 된 '인지단계'는 구한말과 일제시대를 통해서였다. 다음으로 서구 사회사업에 대해 보다 상세한 지식을 얻고자 했던 '흥미단계'는 서구 사회사업을 학습하려는 유학생들이 출현한 1950년대를 전후한 시기이다. 서구 사회사업에 대해 좋다 나쁘다 식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린 시기는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의 시기로 볼 수 있다. 서구사회사업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소수 개혁자들의 평가는 예컨대 4년제 대학에 사회사업교육과정이 설치된 사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950년대 말까지 3개 대학에서 사회사업이 교육되고 있었다.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적용해본 '소규모 시험단계'는 1960년대에서 1980년대 말까지로 보인다. 사회복지관련 입법, 사회복지관의 설치,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배치 등은 서구 사회사업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조금씩 시험해본 계기가 되었다. 최종적으로 서구 사회사업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채택여부의 결정단계'는 지금도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혁신채택과정이 아직도 진행중에 있다는 평가의 연장선상에서 혁신의 확산이 가져온 결과를 논의하는 것은 다소 시기상조이다. 그러나 서구 사회사업의 도입으로 우리사회에 야기된 변화양상에 대한 기존의 관찰들을 소개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여기에서는 서구 사회사업을 한국에 전파한 매체로서 의원단체를 주목한 설명들을 몇가지 소개하기로 한다.

장인협(1986)은 '의원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 교육을 받은 전문직 인력을 고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에서 전문직의 필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하상락(1989)은 해방 후 월남동포, 귀환동포, 국내 빈국민과 실직자 등에 대해 응급책으로서 무계획적인 민간구호단체와 시설이 급증하였고, 외국 자선단체와 기관 등도 많이 도입되었는데, 민간사회



사업 특히 외국인간원조단체 및 기관은 비조직적이고 자선적이며 종교우선적인 구체활동을 하였다고 하면서 '근대적이고 민주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사회사업의 사조와 기반을 우리사회에 도입하게된 것도 이 시기부터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김영모(1992)는 의원단체가 한국의 사회사업에 미친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평가하면서, 의원단체들이 후생사업, 보건사업, 교육문화사업, 생활보호, 재해보호 또는 지역개발사업 등의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였고, 대부분 종교적 배경을 지니고 지원하였기 때문에 자선적 성격이 매우 강하였고 기독교문화(선교 등)를 전파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최일섭(1985)은 '구미 제국의 사회사업의 개념이 1900년대 초기부터 주로 외국 선교사의 선교활동의 일환으로 소개되었고, 의원 기관이 우리나라 사회사업의 전문화에 많은 공헌을 하였으며 특히 지역사회조직 등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전재일,김상규(1987)는 '구미에서 발달한 개별사회사업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1950년 6.25동란 직후 많은 외국인간원조단체가 들어온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하면서 세계기독교봉사회의 가정복지부, 메노나이트 중앙재단 한국지부의 가정아동복지사업부, 캐나다 유니테리안 봉사회 등을 주요 전파 채널로 소개하고 있다.

이상의 설명들을 정리하면 서구 사회사업의 확산채널이었던 의원단체는 (1)한국에서 전문사회사업이 시작되도록 촉발하였고, (2)시설중심의 사회사업이 발전하게된 계기를 만들었고, (3)한국의 사회복지가 거시적인 사회정책보다는 미시적인 전문사회사업 위주로 발전하게끔 하였으며, (4)사회복지를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과 같은 것으로 한국인들이 인식하게 하는데 기여했으며, (5)의원단체의 철수에 따라 의원에 크게 의존하던 한국의 민간사회복지부문이 정부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민간사회복지부문이 정부통제하에 편입되게 하는데 기여했다고 본다. 아울러 의원단체들의 활동은 (6)한국에서 기독교 복음의 전파에 기여하였다고 본다.

이상과 같은 영향(결과)은 과연 수용자측에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왔는가(기능적,역기능적), 수용자측의 변화가 혁신이 가져온 직접적인 결과인가 아니면 간접적인 영향인가(직접적,간접적), 수용자측의 요구에 의한 변화인가 아닌가(현재적,잠재적) 하는 등의 문제는 항목에 따라, 그리고 평가자에 따라 상이할 것이다. 위에서 소개한 설명들에 따르면 (1)의 경우에만 기능적이고 (2)-(5)에 이르기까지는 역기능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된다. 다음으로 (1)에서 (4)까지는 확산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이해할 수 있고, (5)와 (6)은 간접적인 영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원단체들은 한국전쟁을 전후한 혼란기에 응급구호사업과 같이 현재적인 혁신을 추진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 제4절 제3세계 사회사업 발전에 미친 외국(의원)의 영향

한편 제3세계 국가들의 경우 사회사업은 기본적으로 외래적인 것이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제3세계 국가들에서도 서구식 사회사업이 교육, 실천되고 있다. 그러나 서구의 사회사업이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현상을 문제시하는 시각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 매우 오래전부터 제3세계의 일부 학자들은 서구의 정치,사회,경제적 배경을 토양으로 하여 발전된 서구사회사업의 개념과 방법들이 제3세계 여건에서는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해왔다.

제3세계라는 다소 정확하지 못한 범주속에는 다양한 국가들이 망라된다. 한국과 같이 최근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할 정도로 발전된 국가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저발전의 상태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있다. 이들 제3세계 국가에서의 사회사업 발전을 하나의 양상으로 일반화시켜 논의하는 것은 무리이다. 다소의 예외를 감안하면서 제3세계 국가들에서 사회사업 발전을 사회체제 외적인 영향을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들은 식민지 피지배 경험을 지니고 있다. 식민경험은 여러 측면에서 제3세계 사회사업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제3세계 국가들에서 전통적으로 이어 내려온 전통적인 지원체제가 붕괴되거나 변질되었다. 식민경험은 또한 제3세계 국가들의 저발전 상태가 독립후에도 지속되게끔 영향을 미쳤다. 제3세계의 저발전은 낮은 평균수명, 기본적인 보건의료서비스의 불충분성, 극심한 빈부격차, 높은 문맹률, 사회복지의 낙후상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식민지배경험은 사회사업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식민종주국의 사회제도와 행정제도가 선택적으로 이식되는 과정에서 서구의 사회사업도 부분적으로 이식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서구 사회사업의 개념과 기술들이 제3세계에 확산된 과정을 일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서구사회사업을 제3세계 국가에 전파한 주체는 크게 선교단체, 국제기구, 제3세계의 유학생, 서구 국가의 사회사업단체(및 인사), 제3세계 사회단체 및 기구 등이다. 선교단체는 서구의 기독교 복음을 타국에 전파하면서, 선교의 수단으로 당시 자국에서 이루어지던 것과 비슷한 자선사업, 박애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위한 현지인력의 수급을 위해 사회사업 교육기관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국제기구는 국제연합을 비롯한 여러 기구들로서 제3세계 사회사업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였고, 서구 사회사업의 토착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국제기구에서는 제3세계에 대한 원조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사업에 주목하고 이를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하였다. 제3세계의 유학생집단은 일찌기 서구문화에 동화된 상류계층의 자녀들로, 이들은 식민지 지배를 위한 테크노크랫을 양성한다는 종주국의 의도에 부응하여, 서구 국가들에서 지배기술의 하나인 사회사업을 학습하고 귀국하여 이를 전파하였다. 서구 국가의 사회사업 단체 및 인사들도 자국의 사회사업 이념과 방법을 전파하는데 기여하였는데, 예컨대 전미사회사업가협회(NASW)에서는 국제사회사업을 주요 활동내용으로 설정하여 제3세계에 대한 사회사업 아이디어의 전파노력을 기울여왔다. 제3세계의 사회단체나 기구들은 일차적으로 서구 사회사업이 전파된 후에 지속적인 모방과 학습을 수행해왔다.

서구 사회사업이 제3세계에 전파된 시기는 20세기 이후의 일이나, 구체적인 시기는 제3세계 국가마다 다르다. 대체적으로 식민지하에서는 종주국의 사회사업이 앞에서 설명한 선교단체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이식되었던 것에 비해 독립후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서구사회사업의 아이디어와 기술들이 수입되었다.

서구 사회사업의 확산으로 촉발된 제3세계 사회사업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향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은 아직 제3세계 사회사업에 있어서 각국의 사회조건에 부합하는 사회사업 실천과 교육이 자리잡지 못했다는 점이다. 제3세계 사회사업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서구 사회사업 아이디어와 기술들이 거의 무비판적으로 이식되었다는 점이 강조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서구 사회사업의 개인,가족지향의 미시적인 실천개념과 기술들은 제3세계 국가들에서의 저발전으로 인한 거시적인 사회문제들 예를 들어 극심한 빈부격차, 사회혼란, 급격한 사회변동과정에서의 부적응 등 주요 사회문제에 대해 무기력하다는 점이다. 제3세계에서의 사회사업은 기본적으로도 거시적인 불평등과 부조리를 의면하고 지엽적인 부적응현상과 병리현상에 몰입하는 경향이 나타

나고 있다. 그 결과 불가피하게 제3세계 사회사업은 기존질서를 정당한 것으로 보고 개혁과 변화를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보수적인 성향을 지니게 되었다.(물론 남미 국가들에서의 사회사업에서는 '중속이론'의 관점에 따라 사회개혁에 주안점을 두는 사회사업도 일부 실천되고 있기는 하다)(Resnik:1976)

제3세계 사회사업에서 간헐적으로 논의되는 주제는 '토착화(indigenization)이다. 이는 서구 사회사업의 아이디어와 개입기술을 제3세계 맥락에 적합한 것으로 수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제까지의 토착화 작업은 썩 성공적이지 못했다(Midgley:1981). 토착화 실패의 증거들은 많이 제시된다. 제3세계 사회사업 교육에서 여전히 서구 국가들에서 출판된 교재들이 번역도 안된 채로 널리 활용되고 있고,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사례들이 대부분 서구 사회의 사례들이며, 따라서 제3세계 학생들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리고 실제 자국에 존재하지도 않는 사회문제와 이에 대한 사회사업 실천을 교육받고 있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토착화 실패의 증거는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농촌과 농업을 중심으로 한 사회구성을 지니고 있는데 비해 도시와 2-3차산업을 기반으로 한 사회구성에서 이루어지는 서구 사회사업을 어떻게 토착화할 수 있겠는가라는 점에서 드러난다. 예를 들어 사회사업 실천방법론 가운데 지역사회조직(community organization) 방법은 원주민들이 거주하는 도시에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동체를 조직해가는 것과 관련된 개입기술이다. 이러한 의도적인 공동체 형성을 위한 개입기술은 기본적으로 농촌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제3세계 국가들에서는 그 기본 전제에서부터 부적합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또 다른 제3세계 사회사업의 토착화 실패는 민간중심의 사회사업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서구 사회사업은 다원화된 시민사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제3세계 국가들에서는 시민사회가 성숙되지도 않았으며, 시민운동을 허용하지 않는 권위주의적인 정치체제가 장기간 유지되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성숙한 시민사회를 바탕으로 한 민간중심의 사회사업은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들의 복지욕구에 반응적이지 못한 제3세계 권위주의 정치체제에서는 민간부문에 복지책임을 떠넘기면서도 통제를 가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민간중심의 사회사업 지향은 권위주의 정부의 복지책임 회피와 민간에 대한 통제를 가능케한 논리적인 기반을 닦아주었다. 마지막으로 서구 사회사업을 전파한 채널로서 기독교 선교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제3세계 사회사업에서는 종교(기독교)와 사회사업의 혼합이 나타나고 있다. 욕구나 문제를 지닌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회사업실천이 기독교 복음전파와 교묘하게 접목되어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사업 아이디어와 기술의 확산이외에도 기독교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 제5절 맺는말

제3세계의 사회발전(사회사업 발전을 포함하여)을 논의함에 있어서 사회체제 외적인 영향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3절과 4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한국을 포함한 제3세계 사회사업 발전에는 외국, 특히 외원단체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제3세계 사회사업의 정합성 문제가 제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도적 접촉변화로 특징지어지는 서구 사회사업 도입 초기에는 사회체제 외적인 영향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회체제 내부의 변화요구에 따른 서구 아이디어의 모방 및 학습이라는 선별적 접촉변화로 이행된 현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 제3세계 사회사업의 출발은 사회체제 외적인 영향으로 이루어졌지만 이후의 발전과정에서는 사회체제 내적인 계기와 과정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을 비롯한 제3세계 사회사업 발전의 문제점을 모두 서구 사회사업 또는 그것의 확산으로 보는 관점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사업 발전에 미친 사회체제 외적인 영향을 한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자 시도했던 이 글의 결론을 대신하여 혁신확산이론으로 한국(또는 제3세계) 사회사업 발전을 설명하는 작업이 갖는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과거의 한국을 포함하여 제3세계 국가들에서의 사회사업발전(특히 초기의 발전)은 외국(외원)의 영향을 무시하고자서는 설명하기 곤란하다는 점으로부터, 혁신확산이론의 적용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확산이라는 개념이 Midgley의 표현대로 선진국으로부터 후진국으로의 사회복지의 아이디어가 전파되는 현상을 설명하는데 '편리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확산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혁신확산이론이 다음과 같은 한계를 안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첫째로 이 이론에서는 혁신을 창안하고 이를 확산하려는 정보원의 성격에 대해 등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이 이론에서 확산이 이루어지는 단위는 국가와 같은 사회체제수준이 아니라 주로 개인, 집단 또는 소규모 지역사회와 같은 미시적인 단위에 국한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로 확산이론에서는 혁신의 내용에 대한 부당한 발전론적 전제를 두고 있다. 즉 모든 혁신은 기존의 것보다 우월한 것이고, 따라서 혁신이 확산되지 않는 것은 채널선정이 잘못 되었다든지 또는 수용자의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같은 맥락에서, 넷째로 이 이론은 혁신을 주로 창안하고 그것을 확산해온 서구의 문화적 우월주의를 드러내는 서구편향적인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이론에서는 개량옥수수종자, 새로운 의약품, 농기구, 가족계획방법 등과 같이 물질적이고 생물학적인 개혁의 확산현상을 설명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반면 정치행위나 학습에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어떻게 확산되어가는가 라는 사회과학적인 혁신의 확산에 대해서는 거의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확산이론은 제한된 설명력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Bogo, Marion Kei Kudo Maeda, "Collaboration in adaptation of knowledge for social work education for practice : a Canada/Japan experience" In International Social Work, Vol.33, 1990, pp. 27-40
- Bose A. B., "Social Work in India : Developmental Roles for a Helping Profession" In Hokenstad M. C. et. al. ed, 1992, pp.71-84
- Ehrenreich, John H. The Altruistic Imagination: A History of Social Work and Social Policy in the United States,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5
- Ejaz Farida Kassim, "Self - determination : Lessons to be Learned from Social Work, Vol.21, 1991, pp. 127-142
- Jimenez Monica, Aylwin Nidia, "Social Work in Chile : Support for the Struggle for Justice in Latin America" In Hokenstad M. C. et. al. ed. 1992, pp. 29-42
- KAVA40년사 편찬위원회 편, KAVA40년사(가칭), 서울:홍익재, 1994(예정)
- Kilpatrick, Allie, C., Zhang Min-Jie, "Family medi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 a relevant method in social work education for a vulnerable population" In international Social Work, vol.36, 1993, pp. 75-83
- MacPherson, S & Midgley, J. Comparative Social Policy and the Third World, Sussex: Wheatsheaf Books, 1987
- Mia Ahmadullah "Community Participation : The Needed Approach to Primary and Secondary Prevention of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of the Disabled in Rural Communities" In international Social Work, Vol.198 pp. 26-34
- Midgley, James, Professional Imperialism : Social Work in the Third World, London : Heinemann, 1981
- Midgley, James, "Diffusion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Policy : Evidenced from the Third World" In JSP, Vol.13, No.2, 1984, pp. 167-184
- Midgley James, "The Challenge of International Social Work" In Hokenstad M. C., Khinduka s.K., Midgley, J. ed. Profiles in International Social Work, NASW, 1992. pp. 13-28
- Nagpaul, Hans, "The Diffusion of American Social Work Education To India : Problems and Issues", In International Social Work, Vol.15, 1972 pp. 3-17
- Pandey, Shanta, Yadama, Gautam N.,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s in Nepal : A Test of Diffusion of Innovation Theory" In Social Service Review, Vol.66, No.4, 1992 pp. 582-597
- Resnick, Rosa, Perla, "Conscientization : An Indigenous Approach to International Social Work" In international Social Work, Vol.19, 1976 pp. 21-29
- Rodenborg, Nancy, "A Western-style counselling office in Somalia : a case study cultural conflicts in social work practice" In International Social Work, Vol.29, 1986, pp. 43-55

Rogers, Everett, M., Shoemaker, F. Floyd, *Communication of Innovations: A Cross-Cultural Approach*, New York: Free Press, 1971 (서정우, 최선열 역, 『개혁커뮤니케이션론』 서울: 박영사, 1976)

Rogers, Everett, M. *Diffusion of Innovations*, New York: Free Press, 1962,

Segal, Uma, A., "Cross-cultural values, Social Work Students and Personality" In *International Social Work*, Vol. 36, 1993, pp. 61-73

김영모, *사회복지학*, 서울 : 한국복지정책연구소출판부, 1991

나병균, "제 3세계 국가들간의 복지정책 비교를 위한 이론적 논의 - 행위자로서 국가역할을 중심으로" 한림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편, <비교사회복지>, 제 2집 "복지국가의 비교" 1993, pp. 35-52

신은주, "일제식민지하 사회복지사업의 성격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5

이혜경, "사회변동과 사회복지 교과과정 개발의 방향", 한국사회사업(복지)대학협의회, 1993년도 한국사회사업(복지)대학협의회 연찬 자료집 1993. pp. 45-59

장인협, *사회복지학개론*,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1986

전재일 김상규 공저, *개별사회사업*, 서울 : 형성출판사, 1987

조화영, "조선천주교회의 아동복지에 관한 연구 : 박해시대 영해회 사업을 중심으로", 성심여자대학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1989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한국사회복지학의 평가*, 서울 :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1992

최원규, "Kidneigh의 한국 사회사업교육 자문활동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사회복지연구, 제3호, 1991.

최일섭, "지역사회복지론"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5

하상락, *한국사회복지사론*, 서울: 박영사, 1989